



모이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강위 소식지 VOL. 1



발행 : 점진음 | 발행일 : 2025.07.01.(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통상임금 대법원 승리 뒤, 회사는 현장 흔들기... 금속노조 인자컨트롤스 지회 단결로 맞선다

통상임금 대법원 승소, 사무직 및 비조합원을 포함 미지급분 140억 소급 지급
2차 소송 쟁점은 '주휴수당'... 올해 하반기 판결 전망
상시주간 전환과 실질임금 우려와 함께 15년 간 신규채용 없어... 조직력의 위기
통상임금이라는 투쟁의 결실 위에서 지회의 조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또 다른 전선으로

[경주=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소식]



통상임금 대법원 승소, 140억 소급 지급...

모두에게 돌아간 정당한 권리

2025년 1월 19일, 금속노조 경주지회는 통상임금 1차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해 자연이자와 소급분을 포함한 약 14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뿐 아니라, 한국노총 및 비노조 조합원까지 포함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법으로 확인받은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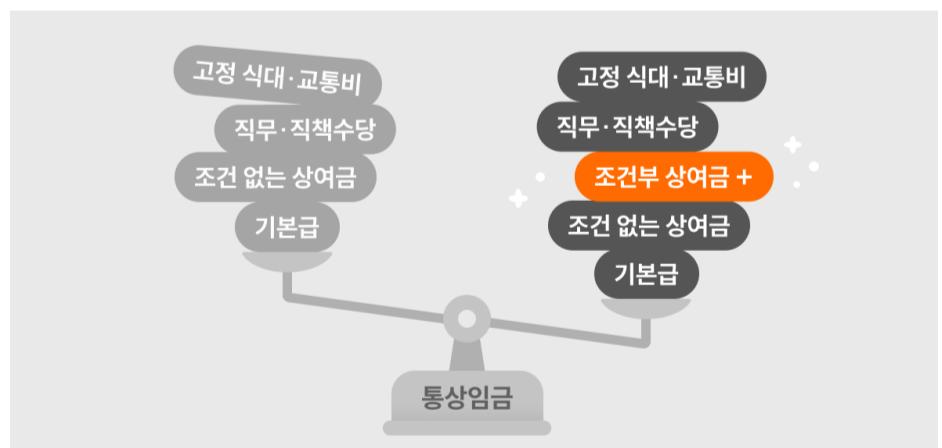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도 현장의 풍경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2차 소송 쟁점은 '주휴수당' ... 올해 하반기 판결 전망

노조는 현재 2차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하반기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차 판례에 따라 이번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급 인상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대응은 오히려 임금 구조를 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시급은 상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무 축소, 외주 확대, 자동화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연장근무나 특근 기회가 줄어들 경우 상승한 시급이 실제 임금 총액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 경주지부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상시주간 전환과 실질임금 우려

더불어, 회사는 상시주간 근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존 교대제 체계에서 지급되던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의 보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우려는 크다. 실제로 안산 본사에서는 이미 16 명이 상시주간제로 전환되었고, 경주 · 옥천 등도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 가능성까지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 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회사가 실제로 현금 여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 차 소송 결과로 발생한 약 140 억 원의 소급분과 지연이자를 회사는 별도의 분할이나 유예 없이 일시불로 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이는 회사가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성 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노조는 “의도된 인력 감축 시도” 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없는 15 년, 조직력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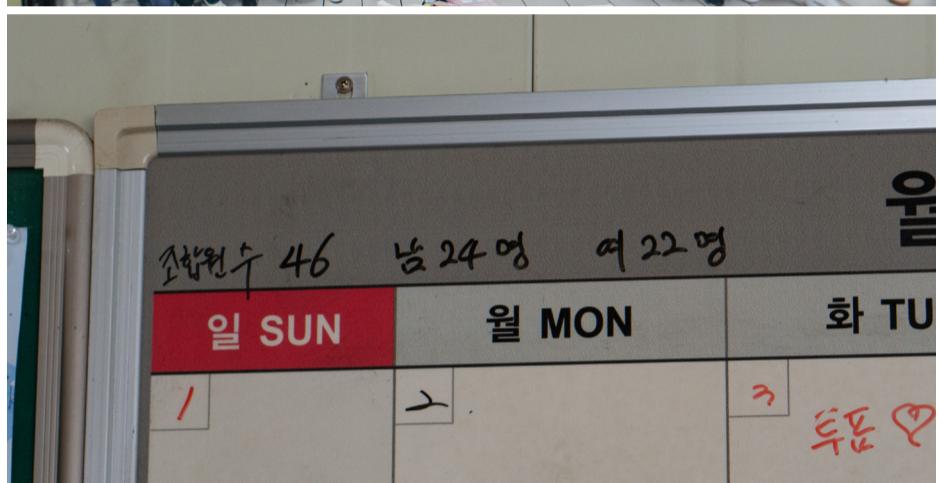
한편, 구조적인 인력 문제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희망퇴직 이후 정년퇴직이 이어지면서, 2018년 약 70 명에 달했던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46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경에는 30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 중심의 한국노총은 수시 채용을 통해 조합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현장적 중심인 금속노조는 인력 보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결국 자연 감소에 따른 조직력 약화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여전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진 한국노총이 산업안전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외주화와 고용, 작업 구조 등 현장 핵심 사안에 대한 실제 협의는 대부분 금속노조와 이루어진다. 이는 현장에서 금속노조가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인지컨트롤스경주지회 최용복 지회장. 소수노조로서 녹록치 않은 현실속에서도 조직력을 지켜내고 있지만, 지속적인 불황과 자동차업계의 침체가 심화에는 답이 없다. 이럴 때일 수록 뭉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상단)2018년도 10주년 기념사진 / (중간) 2024년 기념사진 / (하단) 현재 조합원 수 2018년만 해도 70명이 넘어가던 노조원들이 사측의 희망퇴직 요구와 자연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현재는 조합원 수가 46명까지 줄어들었다. 인력충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30여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더라도 부담이 적은 사무직의 경우, 퇴직과 신규채용이 원활하지만 현장의 경우, 더욱 신규인력 충원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회장은 말한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 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준 조합원들에게 늘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지난 투쟁의 결실 위에서,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스 경주지회는 또 다른 전선 위에서 있다. 임금 체계의 변화와 인력 구조조정, 상시주간제, 외주화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조합은 여전히 현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단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며, 오늘도 조합원들의 단결 위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